

cm 胸幅 四〇cm 光背 現高約 二二·五cm 廣幅 一三·六cm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많은 聲援을 주신 居昌郡 教育課의 白巖基氏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 金在仁白磁墓誌

鄭 良 謨

日前에 劉義澤氏의 好意로 金公의 墓誌를 볼 수 있게 되어 여기에 紹  
介한다.

間或 古老의 말에 「사발지석」이 第一이라고 들었지만 이 金公의 墓誌  
는 우리가 흔히 보는 큼직한 사발은 아니다. 아담한 「보시기」로 若干外  
反된 口緣에서 비스듬히 돌출게 굽으로 끝맺은 曲線이 부드럽기만 하다.

보시기의 바닥을 除外한 內面에 둘러가면서 三段 十六行으로 된 靑華  
銘文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僉樞義城金公之墓辛坐公諱在仁字承天生丁亥卒癸卯二月十一日配貞夫  
南陽洪氏墓在順興愚叟谷村後子坐」라 있어 主人 金公과 그에 對한 簡略  
한 紹介가 있을 뿐으로 그 상세한 것을 審定키 어려워 于先 文獻을 廣  
求 審定치 못하고 대략 그年代를 推定해 보려고 한다.

金公은 義城金氏로 ① 監司 聲久之 後요 그의 高祖 汝鍵은 修撰을 지  
낸 바 있는 肅宗朝의 靑白吏였다. 汝鍵의 生年이 一六六〇이요 卒年이  
一六七七임으로 墓誌의 主人公과의 四代의 世代差를 酌量해서 主人 金  
公의 生年 丁亥는 一七六七로 卒年 癸卯는 一八四三으로 推定하였다.

全面에는 失透性灰白釉가 의위 있고 모래 굽으로 된 굽에는 釉藥이 벗  
겨져 赤褐色의 素地를 들어내고 있으며 靑華의 發色은 좀 짙은 곳은 紫  
色을 들어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톰한 이 보시기의 매무새는 豊基의 民窯  
에서 구워진 듯하며 굽은 比較的 얇고 그릇의 內面 바닥과 굽의 中心部  
가 물레자족의 中心部를 最頂點으로 若干 솟아 있다.

高六·二cm、口  
徑一一·七cm 底徑  
六七cm

끝으로 墓誌銘에  
對하여 于先 한 가지  
問題를 남겨 後顧로  
미루겠다.

金公이 僉知中樞  
府使로 그 婦人이 貞  
夫人으로 되어 있는  
點이다. 그런데 ③ 僉  
樞는 正三品이고 ④  
貞夫人은 文武官 正  
從二品の 妻를 이룸  
이니 或 行 僉知中樞  
府使라고도 受職하  
는 例가 있어 여기  
에 「行」字를 省略한  
것이라면 모르되 不  
然이면 여기에 若干  
의 問題點이 없지 않은가 한다.

### 註

- ① 萬姓大同譜 義城金氏條
- ② 嶺南人物考
- ③ 大典會通 卷之四兵典 正一品衙門中樞府使
- ④ 大典會通 卷之一吏典 外命婦文武官妻

